함평군, 내고향 명품축제서 대상 수상

함평나비대축제 · 대한민국 국향대전
이례적으로 한 지역서 2개의 축제 선정

함평군이 개최하는 '함평나비대축제'와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내고향 명품축제 대상을 수상했다.

특히 이번에 수상한 명품우수축제 부문의 경우 한 지역에서 2개 축제가 동시에 선정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 더욱 눈길을 끌었다.

8일 함평군에 따르면 지역 대표 축제인 함평나비대축제와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이날 국회 본관 귀빈실에서 열린 제3회 내고향 명품축제 시상식에서 나란히 명품우수축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명품축제시상위원회가 주최하고 한류문화산업진흥원 · 도전한국인운동본부(이하 챌린지월드)가 공동 주관하는 내고향 명품축제 시상식은 각 지역 전통과 고유문화를 살린 우수 지역축제를 발굴 · 홍보하기 위한 행사다.

앞서 챌린지월드는 지난달 26일까지 각 지역 우수축제를 접수받아 지역별 · 테마별 특성을 감안한 공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를 활용한 델파이 기법(Delphi Method)을 통해 전국 우수축제를 선정했다.

특히 올해 평가엔 지역축제를 직접 경험한 관광객과 파워블로거 등시민 · 언론인 추천도 반영하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

이번에 함평나비축제와 국향대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식 인증한 전국 884개 지역 축제 가운데 명품우수축제부문 18선에 동시에 이름을 올리며 세계축제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 번 재확인했다.

두 축제 모두 다양한 볼거리, 이색적인 체험프로그램 등을 모두 갖춘 차별화된 지역축제로 손꼽히며 전국 최고 수준의 수익률과 입장수입만으로 흑자를 기록하는 경제축제라는 점이 이번 평가에서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우규 함평군축제추진위원장은 "민 · 관이 합심해 키운 우리 지역축제가 전국 유수의 축제들을 제치고 이번에 좋은 평가를 받게돼 감회가 새롭다"면서, "오늘 수상을 계기로 국내는 물론, 세계축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함평축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신안군 농수특산물 테마
제1호 전문음식점 운영자 선정

신안군을 맛의 예술섬으로 탈바꿈하고자 발족된 신안군 맛예술문화과에서는 지역의 맛과 음식을 소재로한 지역별 특성화된 테마 전문음식점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6일에 신안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신안군 전문음식점발굴육성위원회" 심의위원을 위촉하고, 섬초를 테마로 한 제1호 전문음식점 대상자 선정 심의회를 가졌다. 심의위원은 군 관계자, 대학교수, 요리개발 전문가, 쉐프, 요리강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이날 제1호 전문음식점 대상자는 도초횟집이 선정되었다. 최경애씨는 20년 이상 식당을 경영하면서 사이드 메뉴에 시금치 요리를 많이 활용하고, 시금치 건나물이나 분말, 시금치 액을 이용한 메뉴개발에도 많은 관심이 있어 발전 가능성이 충분한 식당 경영주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맛을 즐기고 탐구하는 목적관광 수요를 반영하여, 앞으로도 신안의 농수특산물인 젓갈, 낙지, 짱뚱어, 함초, 민어, 우럭, 새우 등의 테마를 이용하여 계속해서 제2의 전문음식점을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 9월 6일 서울시청에서 "세계 섬음식 포럼" 개최, 식문화창조센터 건립 추진, 1004섬 맛의 예술섬 조성 마스터플랜 용역, 신안군 섬음식 대표선수 육성 등 신안군이 그동안 식재료를 공급하는 역할이 주였다면 앞으로는 볼거리가 있고 맛을 즐길 수 있는 식문화 체험지로 바꾸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맛의 예술섬을 구축하여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섬음식 맛의 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강진군, 특수미 종자 신청 받는다

내달 4일까지 농업인상담소 통해 접수

강진군농업기술센터가 오는 12월 4일까지 읍면 농업인상담소를 통하여 2020년에 재배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산 벼 종자 신청을 받는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공급하는 벼 품종은 유색미 8품종(녹찰계통, 보석흑찰, 신농흑찰, 신토흑미, 적진주찰, 조생흑찰, 홍진주, 흑향찰1호), 사료용벼 1품종(영우), 특수미 6품종(미호, 설갱, 설향찰, 아로미, 아랑향찰, 향철아), 찰벼 6품종(동진찰, 백옥찰, 보람찰, 운일찰, 청백찰, 화선찰), 추석전출하용 3품종(진광, 진옥, 해담쌀), 밥쌀용 7품종(다미, 새일품, 새칠보, 소다미, 수광, 예찬, 진수미) 총 31품종이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산 종자는 전량 미소독 종자로 공급이 되며, 공급가격은 20kg당 최고 6만6천 원에서 최저 4만5천 원으로, 정부 보급종보다 비싸고 품종별로 가격 차이가 있으므로 품종별 공급가격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좋다.

희망농업인은 벼 품종별 특성 및 품종별 가격을 읍면 농업인상담소에 문의한 뒤 신청하면 된다. 농업인상담소에 접수된 신청물량은 전국단위로 신청량을 집계하여 전체 보급물량 772톤 중 품종별 신청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12월 중순경 확정량이 농가별로 통보돼 보급될 예정이다.

한편 2020년 공급할 국립종자원산 정부보급종은 새일미, 신동진, 일미, 영호진미, 미품, 조평, 운광, 새누리, 동진찰, 백옥찰 등이다.

강진=김영일 기자

호남신문 ☎ 062)229-6000 팩스 062)222-5547

장흥군, 제13회 군수배 전국 승마대회 개최

오는 16일부터 이틀간

장흥군은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장흥승마체육공원에서 '제3회 장흥군수배 전국 승마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장흥군승마협회에서 주최 ·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 장흥군이 후원한다.

전국 승마선수 200여명이 출전하며, 고등 · 대학 · 일반부와 유소년부 장애물경기, 기사 단 · 속 · 연속사, 폴밴딩, 배럴레이싱, 말과 함께하는 노래자랑, KHIS-6(기승능력인증시험) 등 8개 종목으로 경기를 치른다.

각 부문 수상자들에게는 최우수상 200만원 등 총상금 3,000여만원과 부상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종순 장흥군수는"전국대회를 통해 정남진 장흥을 널리 알리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볼거리, 즐길거리가 넘치는 말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군, 미래 예측 핵심역량 워크숍 실시

8급 주무관 30여명 대상

완도군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2박3일간 완도 원네스 리조트에서 군정 역점 추진 사업 이해 및 미래 발전 방향 개발을 위한 핵심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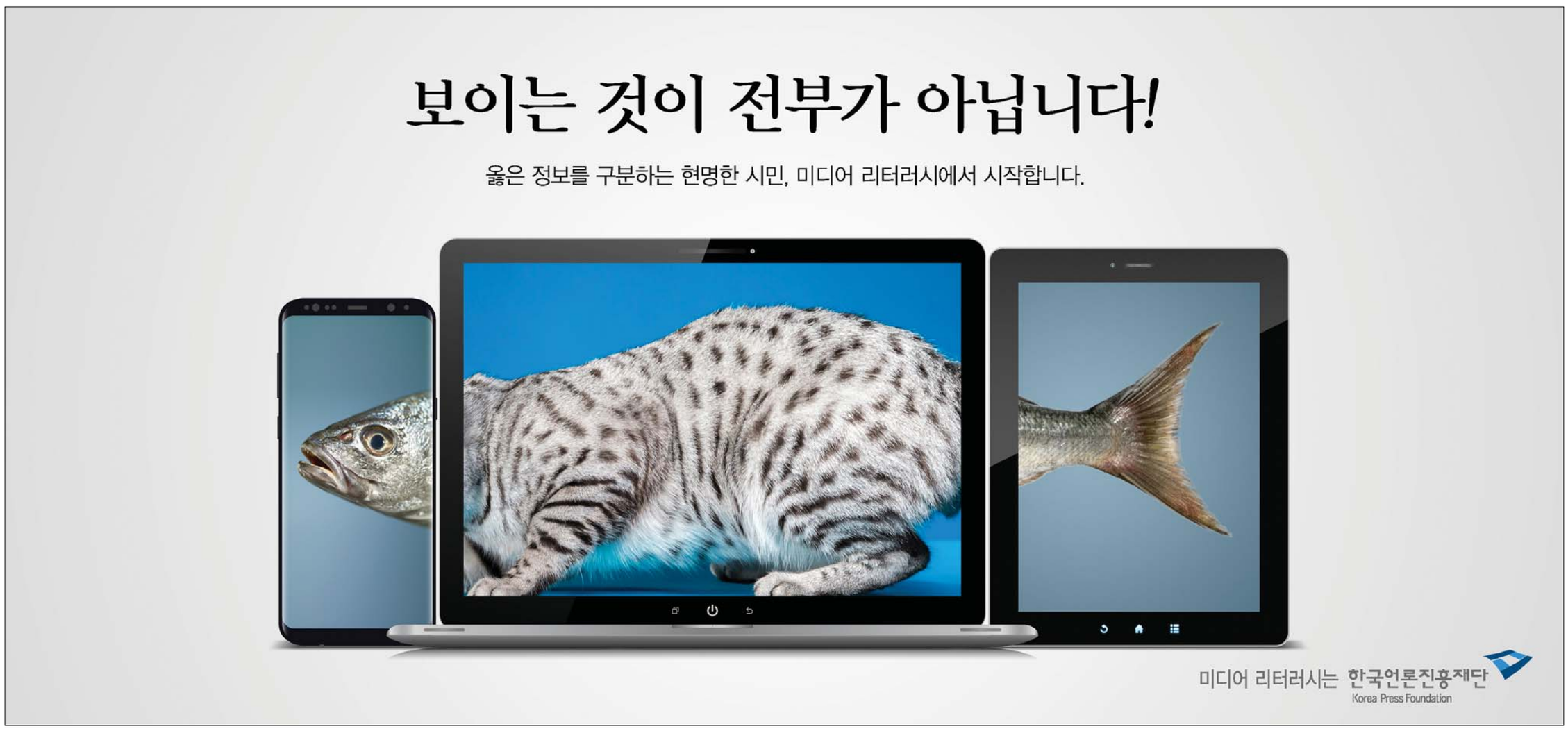
이번 워크숍은 군의 역점 일꾼이 될 8급 주무관 30여명을 대상으로 군의 역점 추진 사업인 '해양치유산업'에 대한 이해 교육과 함께 지역 현안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워크숍은 경제산업, 농림수산, 보건복지, 지역개발, 생활안전 5개 분야로 팀을 구성하여 지역 환경 분석과 함께 정책 과제 사례 분석을 통해 지역맞춤형 과제를 개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정부 각 분야별 정책 추진 방침 이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변화될 미래상 교육 등을 통해 실무현장에서 미래 발전 과제를 접목하는 역량을 키웠다.

각 팀별 제안된 과제로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문화길 조성', '학교급식 친환경 생산단지 육성', '안심육아 · 신혼부부 정주 환경 개선을 통한 인구늘리기', '해양레저 스포츠 문화센터 조성' 등이 제안되었다.

완도군 정석호 부군수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완도군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8급 공직자들이 직무 전문성을 향상시켜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미래 핵심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격려했다.

완도군은 이번에 제안된 정책과제를 기틀로 하여 세부 검토 및 보완 · 수정 과정을 거쳐 핵심 역량 과제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완도=김광수 기자